

## 가치론에서의 가치형태론의 의의

권영경

고전학파에서 가치의 질적 규정 논리와 양적 규정 논리 간의 관계는 실체와 형태 또는 심층·표층의 관계라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불변의 가치척도'에 의해 매개되는 논리로 이해되었다. 즉, 고전학파는 가치의 실체를 규정하는 단위가 그대로 양적 크기도 규정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단위는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척도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가치/가격관계를 수학적 함수관계로 그리고 양자는 양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벡터체계라고 생각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한 상품이 가치대상, 즉 양적 크기를 부여받는다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가치대상성에 사회적 보편성·일반성을 갖도록 만드는 표상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실체를 규정하는 단위는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양적 크기로의 전형을 이미 담지하고 있는 단위여야 한다. 맑스의 추상노동 개념은 형태를 전제한 실체, 그리고 형태로의 전형을 지향하는 실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즉, 가치의 질적 규정과 양적 규정 간의 관계를 매개하기 위해 고전학파가 제기한 불변의 가치척도론을 무용화시킨다. 그리고 그 매개적 논리로서 가치형태론을 제시한다. 가치형태론은 추상노동에 의해 양적 측정가능성을 부여받고 있었던 가치대상에 구체적인 양적 크기를 현실적으로 부여해 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가치척도를 상품세계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관념적 고안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가치관계를 양적으로 일치가능한 함수적 관계로 보고, 가치론에는 해결되어야 할 '전형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는 리카디안적 사고를 거부하며, 가치의 질적 규정문제와 양적 규정문제를 형식논리학적으로 독립/종속변수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종합적 시각에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요컨대, 가치형태론은 고전학파 가치론의 이론적 불안정을 극복하게 하는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 I. 서 론

가치형태(value-form)란 관념은 가치실체와 그 형태와의 변증법적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를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로 전제해야만 인식가능하게 된다. 고전학파에 있어서는 가치론 연구가 량적 분석에만 치중해 있고 자본주의사회를 前자본주의사회와 구분되지 않는 비역사적 자연형태로 고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형태론이란 이론범주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격과 가치를 구분 못하고 가치결정문제가 오직 가격범주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환가치의 성립을 상품 자신의 독자적 존재만의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상품들과의 대자적 관계를 통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품들간의 가치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상이한 그들 사용가치로서의 존재 자체를 비교가능하도록 동질화해 줄 수 있는 어떤 공통의 단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치표현론'적 논리는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노동량이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격으로 표현되려면, '내재적 척도'인 노동이 그대로 '외재적 척도'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형태론이라는 媒介的 理論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상품들의 가치가 양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동질의 등노동량이 상호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때 각 상품들의 노동량은 가치표현 및 비교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그것은 각기 다른 상품들의 사용가치 단위량으로 그 형태를 취하므로 이 때 가치표현수단, 즉 척도수단(동가형태)으로 사용되는 상품의 가치는 결코 불변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物이 가치표현수단으로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가치대표물(representatives of value) 역시 관념적 고안물로서가 아니라 가치관계 내부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고전학파에서는 이 점이 전혀 인식될 수 없었다. 물론 맬더스가 "모든 物은 가치의 대표자로 되기만 하면 가치의 척도로도 될 수 있으며, 화폐의 본질적인 두 가지 特性을 모두 지닐 수 있게 된다"<sup>1)</sup>고 가치표현관계로부터의 화폐발생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는 이것을 상품교환경제가 아닌 물물교환경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가치표현수단을 스미스나 리카도처럼 편의상 주어지는 것으로 고찰하고 말았다.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에 있어서는 가치표현문제가 궁극적으로 '불변의 가치척도'(invariable measure of value)에 대한 탐구문제로 인식됨으로써, 오직 불변의 가치척도의 성립조건만이 문제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치형태론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치

1) Malthus, T. R. [19], p. 25.

실체 및 원천에 관한 문제만이 명료히 되었을 뿐이다. 가치의 量化(quantification) 및 양적 표현문제는 맑스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전학파가 가졌던 전반적 문제 및 투하노동척도의 부적합성을 검토해 보고, 추상노동문제에 의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리고 가치척도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 후, 가치론사에서 가치형태론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에서 가치의 양적 표현

### 1. 고전학파의 전반적 문제

상품들간 교환관계를 통한 가치의 가격으로의 표상문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로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품에 내재해 있는 두 가지 모순된 가치의 성질을 이미 파악하고 가치의 표현, 즉 교환가치의 형태는 화폐를 통하여 주어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록 두 상품의 교환관계의 배경에 물물교환에 기초한 공동체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質과 단위가 서로 상이한 두 상품간의 교환의 공통기준을 화폐와의 관계에서 구함으로써 베일리에 앞서서<sup>2)</sup> 화폐형태가 가치표현 및 비교의 전제임을 제시했던 것이다. 예컨대, 한 채의 집이 5미네(Mine)라는 단위의 화폐와 교환가능하고 한 대의 침대가 1미네 단위의 화폐와 교환가능하다면, '한 채의 집 = 다섯 대의 침대'로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와 같은 상품 對 상품 간의 가치표현관계가 상품 對 화폐 간의 교환관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단순한 가치표현' 관계가 발전하여 화폐형태로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sup>3)</sup>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상품간 가치관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질적으로 동등한 실체가 기초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sup>4)</sup>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는 화폐를 상품생산과 무관하게 교환의 편의적 요구에 따라 발생한 교환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척도기능을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하는 것으로서만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하나의 관계가 또 다른 관계를 내포하는 발

2) 이에 대해서는 권영경 [2] 참조.

3) 그러므로 맑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치형태론리를 최초로 분석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Marx, K. [22], Vol. I, p. 73.

4)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等價性 없이 교환은 있을 수 없으며, 동가성 또한 可測性(commensurability)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Castoriadis, C. [10], p. 668에서 재인용.

전적·생성적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質的轉化에 따른 내재적 전개로서의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모순적으로 일어나는 도출관계로서만 생각했다. 즉, 화폐형태가 상품對 상품들 간의 가치표현관계에 있어서의 전면적 교환의 모순으로 인해 발전된 형태로서 요구된 것이 아니라 교환의 필요에 따라 서로 가치표현관계를 맺은, 상이한 상품단위를 동등한 양으로 단순히 측정해 주는 기준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근본적으로 가치표현관계의 전제가 되는 질적 기초, 즉 질적 동등성이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서, '가치실체논리가 없는 단순한 가치표현논리'에 지나지 않은 논리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가치표현론의 전제로 요구되는 가치실체에 관한 문제는 오랜시간이 지나 페티(Petty, W.)에 의해 비로소 그 설명이 이루어졌다. 페티는 시대적 제한상 근대적인 賃勞動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관계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치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교환되는 상품간에 노동의 질적 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품간 교환에는 동일량의 노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후퇴하여 가치표현문제를 제거하고 가치의 양적 크기를 측정하는 직접적 수단으로서 銀과 穀物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치원천으로서의 노동과 토지를, 가치척도로서는 銀과 곡물을 고려하는 '二重的 二元論'을 제기하고 화폐의 기원을 상품관계 외부로부터, 즉 가치관계 외의 요인에서 구하는 문제점을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사에 시원적으로 남겨 놓고 말았는데, 이는 스미스와 리카도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스미스는 우선 가치원천론에서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페티의 곤란을 해소하고 노동을 가치결정의 유일한 요소로 귀착시켰다. 그리고 이 유일한 가치원천인 노동에 의해 규제되는 실질가치를, 현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격형태의 진정한 가치라고 봄으로써 실질가치의 측정 역시 그 규제요인인 노동에 의해서만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질가치를 측정하는 內在的 尺度로서 노동을, 外在的 尺度로서 화폐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페티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었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고, 분리되어 있었던 가치원천론과 가치척도론을 일단 동일이론적 차원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다. 물론 내재적 척도의 기능을 노동에 부여함에 따라, 화폐의 주요한 기능을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서만 고찰하며 화폐의 발생을 가치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인식하는 페티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sup>5)</sup> 그러나, 실질가치를 측정하는

5) 가치의 양적 표현문제에 관한 인식론의 不在는 곧 화폐를 무엇보다도 유통수단으로서만 고찰하고, 가치척도로서의 수단을 그것에 부수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함으로써, 화폐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浜田和夫 [32], p. 1~2.

내재적 척도는 그 자체가 가치변동하지 않는 척도이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가치로서의 실질가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내재적 척도는 곧 '불변의 가치척도'여야 한다는 고전학과 정치경제학 고유의 곤란성이 야기되었는데, 스미스는 제임스 스튜어트(Steuart, J.)의 영향을<sup>6)</sup> 받아 金, 銀 등은 불변의 가치척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支配勞動을 불변의 가치척도로서 선정하였다. 이는 결국 투하노동을 가치원천으로 보면서 가치척도는 지배노동에서 구하는 논리로서 다시 가치원천론과 가치척도론의 단절이라는 페티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이었다.<sup>7)</sup>

이에 리카도는 이러한 단절을 일소하여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가치원천론과 범주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가치척도론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보기에 이제까지 정치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가치척도들, 즉 金·銀 등과 같은 화폐, 곡물, 지배노동 등은 모두 가변적인 척도이므로 '불변의 가치척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척도는 투하노동척도였다. 왜냐하면, 투하노동은 다양한 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표상의 세계인 교환과정<sup>8)</sup>이 아니라, 가치결정영역 자체에 속해 있어서 그 자신의 생산력변동 외에는 결코 가치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투하노동은 가치의 실체·원천이면서도 척도로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투하노동은 어디까지나 내재적 척도일 뿐 교환관계, 즉 상대가치를 측정하는 영역에서의 외재적 척도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상이한 시점간 상대가치의 변동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리카도는 상대가치의 의미를 상이한 사용가치량의 교환비율, 즉 가치형태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상대적 비율의 의미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상이한 시점간 상대가치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조건하에서도 투하노동시간이 불변인 척도가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상품세계에서 이러한 내재적 척도와 동일한 현실적 척도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재적 척도는 곧 외재적 척도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리카도는 교환영역에서 내재적 척도인 불변의 가치척도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절대가치량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절대가치의 표준척도'를 생산영역에서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대가치와 상대가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즉, '상품 A의 절대가치 = 불변의 가치척도' 또는 '상품 B의 절대가치 = 불변의 가치척도'라는 관계를 통하여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상대가

6) 사실 '불변의 가치척도론'은 제임스 스튜어트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소위 마지막 중상주의자로서 화폐를 가치가 定在된 형태, 즉 富의 일반적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불변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금속함유량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金이나 銀이 반드시 화폐로 될 필요는 없으며, 고정된 도량표준을 갖는 관념적 화폐(은행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척도로서의 화폐는 무게, 길이나 각도를 재는 자연적 척도처럼 物의 가치를 측정할 때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興山忠信 [33], pp. 44~45.

7) Rubin, I. I. [28], p. 192.

치( $V_a/V_b$ )의 변화를 알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가치표현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이를 더 이상 탐구하지 않았다.

## 2. 투하노동척도의 부적합성

리카도의 투하노동개념은 가치공간을 양화하는 기준으로서 노동시간을 제시하지만, 그것에 의한 가치공간의 동질화과정 = 양화과정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과정이지 못하고 개별적이며 사적인 차원의 과정이라는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양화의 기준으로서 삼은 노동시간 자체는 생산과정에서 사적으로 지출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노동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으로 지출된 단순한 노동시간은 비록 노동시간이라는 양적 크기를 갖고 있더라도, 구체적 측면의 개별노동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승인과는 상관없는 노동시간이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치창조노동으로서의 투하노동개념, 즉 노동시간의 의미를 고려하려고 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현재의 생산발전단계에 대응하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서의 양적인 의미 외에 질적인 의미로서, 구체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노동형태들의 동등한 노동으로의 전화, 즉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소위 환원문제도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리카도는 스미스와 달리 투하노동의 가치실체로서의 기능이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 가치척도로서 노동시간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실체량, 즉 투하노동량과 상품가치 크기와 의 직접적인 양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가치의 양화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해명할 수 없었다.

상이한 노동의 동등한 노동으로의 전화, 즉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문제는 로스돌스키(Rosdolsky R.)의 말처럼,<sup>8)</sup> 同種勞動部門내 숙련도가 상이한 노동의 미숙련노동으로의 환원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다양한 종류의 미숙련노동의(異種미숙련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 그리고 異種勞動部門내에서 복잡도가 상이한 노동의 단순노동으로의 환원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에는 노동의 부문간 이동의 용이성과 사회적 노동력의 부문간 또는 부문내 각 생산단위간의 배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노동의 환원문제가 추상노동의 定在 및 가치의 양적 표현문제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문제<sup>9)</sup>로서, 결코 생산·기술적 차원에서만 인식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8) Rosdolsky, R. [27], 1st published, pp. 506 ~ 520.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품교환 및 가치형태(화폐형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리카도는 이질노동의 동질노동으로의 환원문제를 노동생산성 차이로밖에 현상할 수 없게 하는 숙련노동/미숙련노동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이미 그것과 교환가치 및 가치형태와의 연관성을 배제시켰다.

다음, 상품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어야 하는 문제를 보면 이 측면 역시 리카도는 생산·기술적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음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개별노동시간에 의해 지출된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기술적으로 생산조건이 가장 불리한 생산부문에서 지출된 노동시간에 의해 교환가치가 규정된다고 보았으면서도, 이 법칙을 농업생산의 자연조건의 차이에서 찾은 다음 제조업부문까지 적용되는 일반법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볼 때, 가치실체로서의 리카도의 투하노동개념은 가치형성 자체를 시장 및 교환과정과는 무관하게, 즉 상품-화폐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오직 생산영역내에서 생산계수 및 노동벡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가치크기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시간량에 의해 결정되고, 교환과정은 단지 이렇게 결정된 크기를 양적으로 동일하게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원리적으로 노동과 가치-교환가치, 노동과 화폐, 가치와 가격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치범주를 노동주체로부터 인간노동능력 및 에너지가 유출되어 상품에 실체적으로 물질화, 응고한다는 ‘實體主義的’ 측면에서 파악하고, 화폐 없는 실물적 상품경제만을 고려한데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리카도는 가치론을 순전히 가격결정론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입/산출계수에 의해 상대적 가치체계로부터 상대적 가격체계를 양적으로 도출하고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문제를 단순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로 이해하며 양자의 일치 를 가치론의 존립목적으로 삼는 스라파식의 논의가 유도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0)</sup>

9) 노동의 환원(reduction) 문제 자체는 가치창출노동인 추상노동의 형성과 이를 통한 가치생성의 문제와 동일선상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이한 노동생산물간에 동가관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추상노동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크라우제(Krause, U. [17], pp. 116~140)는 추상노동량, 즉 가치량 계산을 위해 상이한 구체노동들간에 어떤 비례적 관계를 보여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스라파의 표준상품과 대비되는 ‘표준환원’(standard red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원문제(reduction problem)와 전형의 문제(transformation problem)는 ‘쌍둥이 문제’(twin-problem)라고 주장한다.

10) 그런데 사실 강조를 위해 스라파와 리카도의 관계를 정확히 언급한다면, 스라파는 리카도가 고려했던 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속성으로서의 가치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라파의 ‘날짜 붙은 노동’ 방정식의 계수들은 리카도와 상관없는 투하노동량이기 때문이다. 리카도는 투하노동의 의미를 비록 현상적으로는 노동시간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노동능력 에너지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투입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스라파는 단지 무한대 시간에 걸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량의 합계를 투하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분석은 처음부터 비용 텀의 가격결정론에 지나지 않은 것이

그러나, 가치는 심층(esoteric)의 영역에서 가격은 표층(exoteric)의 영역에서 규정되며 운동하는 범주인데, 어떻게 아무런 매개과정 없이 전자를 후자에 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스미스는 쥘피터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지하고, 리카도는 하나의 마술지팡이(divining rod)와 다를 바 없는 '불변의 가치척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카도는 특수한 상대가치 성립에 불변의 가치척도를 개입시키면 양적으로 일치가능한 생산가격체계가 도출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변의 가치척도는 현실의 상품세계를 동질적인 양적 차원으로 수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척도가 아니라 자연적 척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sup>11)</sup> 이것이 리카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딜레마는 왜 야기되었는가?

우선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그가 비록 나중에는 이론적·관념적 차원에서 고찰하게 되었지만—— 불변의 가치척도를 실재하는 도구로서 생각하고, 이렇게 추상도 높은 개념을 경험적으로 실증하고자 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표상하는 물상적 존재로서의 상품, 화폐, 자본 등을 모두 실체인 노동으로만 환원시킬 뿐, 그것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표상하는 하나의 표상적 존재로서 고찰하지 못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상품, 화폐, 자본 등이 모두 단순한 노동생산물, 즉 實在物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가치를 표상하는 대상으로서는 결코 간주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상품, 화폐, 자본 등은 사회적 규정하에 놓여 있는 형태로서 결코 인식되지 않았다.

철학적 의미에서 表象이란, 특수하게 존재하는 物에 일반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사물은 표상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특수한 대상 및 物들을 상호 결부시키고 그것에 보편성·일반성을 산출하는 힘으로 된다. 그러므로 표상이란 실재하는 사물과 관념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적 존재로 가능케 하며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비가시적이거나 인식불가능한 것을 가시적이며 인식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인식론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物내에 가능성만으로 존재했었던 보편성, 일반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생성시키는 존재론적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세계에서의 표상은 質적으로 상이한 한 노동생산물과 다른 노동생산물 간의 관계양식, 즉 가치형태로서의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품, 화폐, 자본 등이 표상으로서 의미지워진다는 것은, 그것들이 곧 가치형태로서 사회적 관

라 할 수 있다. 그의 생산가격론을 굳이 가치론이라는 명칭을 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날짜 붙은 노동가치론'(Dated-Labor Theory of Value)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스티드만(Steedman, I. [30])에 의해 '마이너스 노동가치론'이 제기된 것은 스라파 이론체계에 한해 볼 때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1) 이에 대해서는 권영경 [1] 참조.



계내에 놓여 있는 대상이며 상품세계의 한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즉, 소재로서의 특수한 노동생산물들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형태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오류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맑스는 이 점을 인식하고 일찍이 「아돌프 바그너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註釋」(Randglossen zu A. Wagner's "Lehr Buch der politischenökonomie")이라는 소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바그너 씨는 나에게 있어서 주제는 '가치'와 '교환가치'가 아니라 상품임을 간과하고 있다. — 나는 '概念', 즉 '가치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가치개념을 '분류하는데' 관심이 없다. 나는 현재 사회에서 노동생산물이 그 자체로 현상하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 즉 '상품'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내가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생산물이 나타내는 형태이다. 이 점에서 나는 한편으로는 사용물, 즉 사용가치로서의 자연형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가치 그 자체인 교환가치의 擔持者(träger)를 발견하고자 한다. 후자의 분석은 교환가치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표상하는 방식이며 유일한 '현상형태'임을 보여 준다."<sup>12)</sup>

즉, 가치분석을 함에 있어서 리카도처럼 초역사적인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이라는 임의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실존조건, 즉 자본주의의 특수한 생산물형태인 상품형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13)</sup> 사실 그 당시 가치론사적 발전도상에서 볼 때 리카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밖에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즉, 첫째, 교환가치 크기의 척도를 다른 것으로 추구함으로써 투하노동가치론을 포기하거나, 둘째, 가치실체로서의 투하노동개념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주의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이론으로서 가치론을 새롭게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토렌스, 밀, 맥컬록, 배일리와 같은 당시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맑스는 두 번째 방식을 수용하여 구체적 추상이론으로서의 가치론을 재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리카도의 본질적인 결함을 잘 통찰하고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리카도의 가치실체로서의 투하노동개념은 가치범주를 시장과 관련 없이 생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범주들을 표상능력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가치이론을 상품생산의 사회적 형태와 분리된 채 일어나는 단순한 생산과정에서의 기술적인 '勞動支出理論'으로 고찰하게 하는 반면, 가치실체를 무시한 배일리의 '관계'로서의

12) Marx, K. & Engels, F. [23], MEW, Vol. 19, p. 358, pp. 368 ~ 369.

13)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흥 훈 [4]은 맑스가 상품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물화된 관계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물화의 가장 단순한 구체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14) Himmelweit, S. & Mohun, S. [16], p. 72.

가치개념은 교환가치형성 및 변동현상을 노동과정 측면과 무관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sup>15)</sup> 가치이론을 단순한 '相對價格決定理論'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는 양자 모두 가치분석을 실체와 형태 간의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실체인 노동은 상품형태라는 물화된 형태를 통하여 인간간 사회적 관계를 표상하고 그 양적 크기를 외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는 가치의 질적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교환비율로서의 교환가치 형성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한데 기인한다. 그래서 맑스는 양극으로 치우쳐 있는 양자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가치의 실체와 형태의 종합(synthesis), 또는 가치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종합을 의도하고 가치실체개념으로서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에 의해 비로소 이와 같은 종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양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맑스에 의해 가치형성요인으로 파악되는 추상노동개념은 형태, 즉 가치의 표현형태를 전제하고 있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그 형태로의 전형을 지향하는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가치의 양적·질적 측면 그리고 실체·형태 측면을 종합적이며 상호제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 맑스가 이 개념에 의해 고전학파의 난제였던 가치론의 불안정성 및 가치의 양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데는, 무엇보다도 리카도와 상이한 차원에서 가치개념을 인식한데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절대적(즉 자적)인 것이기는 하나 하나의 실재물로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노동 일반, 노동시간의 대상화·물질화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사전에 物의 속성으로서 실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관계내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 성질이다. 가치로서 존재하는 상품은 자연형태로서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크기로서 物로서의 상품의 속성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 즉, 자기의 사용가치와는 독립된 사회적 관계의 반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품이 나타내는 '가치대상성'(Wertgegenständlichkeit)이라는 것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실존적인 현물적 대상성이 아니다. 그것은 "한 분자의 자연적 소재도 포함하지 않은 환상과 같은 대상성" 또는 "추상적인 대상성"이기 때문에 실재물로서의 상품 그 자체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으며, 사회적 관계내에서야 비로소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맑스에 있어서 가치개념은, 사회적 관련성 없이, 즉 사회적 형태로서 존재하는 상품-화폐형태의 고려 없이, 독자적·절대적으로 파악되는 관념적 개념이 아닌, 유물세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실재개념으로서 교환을 통해 확인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로서의 상품개념은 인간노동력이 물질적·실체적으로 응고된 '독립적인 物'(Ding)이 아닌, 사회적 연관내에서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物象'(Sachen)으로서 인식되

15) 권영경 [2] 참조.

는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실체로서의 추상 노동이 상품세계를 고려한 가운데서만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가치범주 또한 생산과 교환의 접합을 전제한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해서, 가치 자체를 배일리적 혹은 오늘날의 이단론자들의 접근방식(heterodoxy approach)처럼 순전히 상품교환에 의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치범주는 그 형태가 교환가치 나아가서는 가치형태(화폐형태)로 표시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기초한 범주이다. 그러므로 일정량의 가치크기 자체는 이미 '사회성'을 띠고 있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의 추상적인 인간노동 지출에 의해 주어져 있으며, 단지 교환에서 상품관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객관화될 뿐이다. 가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규정된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노동의 대상화로서 가치형태(화폐형태)를 전제한 사회적 범주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조절되며 제약되어 있는 '인간노동 일반'이라는 구체적 본질의 표상을 지향하는 생산에 기초한 객관적 운동범주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올바른 이해는 형태를 전제한 실체로서 그리고 형태로의 전형(metamorphosis)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노동에 기초하여, 실체주의적 가치개념과 형태주의적 가치개념을 변증법적으로 구별, 통일시키는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深層經濟가 表層經濟를 결정하지만 동시에 심층경제의 재생산은 그 자체가 표층경제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하며 "형태 없는 실체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 없는 형태도 있을 수 없다"<sup>16)</sup>고 한 리피에츠(Lipietz, A.), 또는 "맑스 비판의 주요 논점인 노동 = 가치라는 잘못된 인식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종합이 요구된다"<sup>17)</sup>고 주장하는 루빈(Rubin, I. I.)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이제까지 리카도적 시각에서 이해되어 왔던 가치척도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 보고, 추상노동개념이 어떻게 가치형태를 필연화하고 고전학파의 고민을 극복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Ⅲ. 맑스에 있어서 가치의 양적 표현

#### 1. 맑스에 있어서 가치척도의 의미

이제까지 많은 네오-리카디안, 투하노동접근론자들은 맑스도 리카도처럼 노동시간

16) Lipietz, A. [18], pp. 9~27.

17) Rubin, I. I. [28], p. 112.

을 가치의 內在的 尺度(internal or immanent measure)로 삼고 그것을 外在的 尺度(external measure)인 화폐와 구별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양자의 일치를 증명하는 것이 가치론의 과제이며, 전형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맑스의 가치실체범주인 사회적 추상적 인간노동(이후 추상노동으로 표시한 것은 이 의미임)개념을 실체주의적·생리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사고방식으로서 가치와 화폐와의 연관성을 무시한 것이며, 그의 가치론과 리카도의 가치론간에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맑스는 “어떤 사용가치의 가치크기를 배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그 사용가치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뿐이다”<sup>18)</sup>라고 하고 또한 『자본론』 제1권, 화폐장 서두에서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척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이다”<sup>19)</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는 가치크기와 가치형태와의 관련성, 노동시간과 화폐와의 내재적 연관성 등이 전혀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추상노동의 성격이 표현되는 양식과 추상노동량의 측정간에 분리가 있게 된다. 추상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때의 의미는 수학공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상이한 質(quality)의 공간을 量的인 성질로 전환시켜 특수한 대상으로 하여금 보편성을 획득하게 하는, 즉 다른 대상과 비교가능한 표상능력을 갖게 하는 성질의 반영일 뿐이다. 그리고 또한 가치로서의 상품의 실체를 보여 주는 내용일 뿐이다.

사실 상품이 측정가능한 대상 또한 교환가능한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추상노동량, 즉 사회적 노동시간이 그것에 무차별하게 대상화되어 양적인 측정가능성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상품을 구체적 노동의 대상화로서 고려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質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측정가능성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 노동은 사회화될 수 없는, 즉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순수한 개별적 노동이기 때문에 가측성(commensurability)을 표현할 수 없다. 예컨대, 鐵이 이미 무게로 재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탕이나 빵, 호미, 구두 등의 상품단위들과 비교가능한 아무런 공통단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필요노동량, 즉 추상노동량에 의한 가치크기의 결정이라는 것은,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대상에 양적인 형태규정성을 부여하는 매개과정이고 특수한 대상으로 하여금 보편성·일반성을 획득하게 하는 표상적 과정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엘슨(D.El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8) Marx, K. [22], Vol. I, p. 54.

19) Marx, K. [22], Vol. I, p. 109.

“맑스가 노동시간이 가치척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순수한 量으로서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노동시간은 가치측정의 매개물이지 내재적 가치척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노동시간에서 추상노동을 구체노동으로부터 분리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측정의 매개물로서 규정될 수 있는 방법만이 상이한 종류의 노동간에 질적인 차이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sup>20)</sup>

내재적 척도의 의미는 이렇게 질적으로 불균등한 가치공간을 질적으로 같고 양적으로만 불균등한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매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외재적 척도란 이에 어떠한 대응을 갖는 개념인가? 하나의 상품은 추상적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음으로써 교환가치, 즉 다른 상품과의 비교가능성 내지는 교환가능성을 획득하지만, 그 양적 크기, 요컨대 교환가치의 크기 자체는 추상적 노동의 대상화, 가치대상성 자체가 '환상적인 대상성'인 까닭에 대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교환가치의 양적 크기는 물상적으로, 즉 사용가치형태의 상품을 매개로 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교환가치의 실체인 추상노동 자체가 상품간 교환관계를 매개로 하여 구체적 노동으로부터 추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용가치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다. 즉,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형태를 자기의 현상형태로 삼아 그 사용가치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제 상이한 인간들의 노동들이 추상노동의 형성에 의해 서로 동등한 일반노동으로 관계되는 방식은, 사물들이 사회적으로 관계되는 물상적 관계방식으로 전환되고 교환가치는 그 외적 표현, 즉 척도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외재적 척도란 덩다, 출다와 같은 질적인 기후의 내용을 구체적인 양적인 크기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수은주의 높이, 예컨대 섭씨 몇 도 및 화씨 몇 도와 같은 것으로서 대상에 교환가능성 및 측정가능성을 부여해 준 실체의 양의 표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재적 척도는 특수한 질적 대상에 量的測定可能性을 부여해 주는 실체량인 반면, 외재적 척도는 하나의 물상을 매개로 그 실체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지에서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요강』에서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사회적 실체인 노동에 대한 관계이지만, 가격으로서의 상품은 다른 생산물의 자연적 양으로 표현되는 관계이다”<sup>21)</sup>라고 하고, 가치실체를 무시한 가치형태만을 주장하는 베일리를 비판할 때에는 “내재적 척도는 순수한 양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의 특징을 말하고, 외재적 척도는 이 量의 측정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媒介物을 의미한다”<sup>22)</sup>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맑스의 주장에 따라 리피에츠 역시 “내재적 척도가 실체량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

20) Elson, D. [14], pp.137~138.

21) Marx, K. [21], pp.189~190. 강조는 필자의 것임.

22) Marx, K. [34], 日譯, 『資本論草稿集』 7, p. 196~223.

재적 척도는 하나의 실체량이 동일한 실체량을 표상하고 있는 어떤 실체량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상품가치의 내재적 척도는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량이고 외재적 척도는 그 상품의 價値代表物의 양(화폐 형태)인 것이다”<sup>23)</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재적 척도 및 외재적 척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양자를 각각 노동시간과 화폐로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매개과정 없이 그 일치를 추구한 리카도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노동시간과 화폐가 내·외재적 척도로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불연속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상호 내적 연관을 갖는 연속성과 차별성의 관계로서 이해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맑스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내재적 척도와 외재적 척도 간의 구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른다.<sup>25)</sup> 이체언에 따르면,<sup>26)</sup> 척도를 두 형태로 구별하는 것은 단지 교환가치의 양적 크기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가 자신의 내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비교되는 다른 실체량의 변화 때문인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두 척도의 구별은 사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 상으로는 동일한데, 이는 내재적 척도 자체가 외재적 척도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크기로만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맑스는 이 양자의 관계를 결코 기계적인 접합이나 수량적 관계 그리고 양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양자의 관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서 결정화(crystallization), 구체화(incarnation), 체현(embodiment), 신진대사(metabolism), 전형(metamorphosis) 등의 용어를 저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적·생물학적 용어로서 궁극적으로 형태변화라는 의미를 담지하는 개념들이다. 가치실체인 추상노동은 상품들간 교환관계에서 質(quality)을 量(quantity)으로 전화시키는 내재적 척도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화 또는 현상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상품 안에 포함되고 있는 실체는 생명이 정지된, 단순히 딱딱하게 응고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젤리와 같은 자기활동하는 운동형태들로서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화학작용에 의해 물질적 형태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켜 나간다. 이는 마치 물리학에서 빛, 열, 역학운동이 자기활동하는 동일 소재에 의해 일어나는 동등한 작용

23) Lipietz, A. [18], p. 22.

24) Elson, D. [14], p. 139.

25) 分析哲學 입장에서 맑스의 가치론을 비판한 베크(Becker W.)는 맑스가 모순되게 두 개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본다. 즉, 20마의 면직물 = 한 벌의 저고리라고 했을 때 맑스는 이 동등성의 척도로서 10시간이라는 동일 노동량과 한 벌의 저고리라는, 말하자면 노동시간과 동가형태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베크의 이러한 견해는 가치실체규정과 형태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연속적 관계에 있으면서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내재적 척도와 외재적 척도를 오히려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Becker, W. [6], p. 49~51.

26) 이체언 [3], p. 13.

으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화학에서 내적 분자구조가 결정형태로 있는 실체의 표상(맑스가 사용한 예에 따를 것 같으면,  $C_4H_8O_2$ 라는 분자구조는 동일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酪酸**이라는 물질과 **프로필蟻酸**이라는 물질형태를 만들어 낸다)을 그리고 생물학에서 살아있는 유기조직의 세포구조가 유기체의 형태를 조절·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상품세계에서의 상품교환관계를 통하여 운동형태로서의 실체가 한 상품 사용가치형태로 전형하는 것은, 관념적 과정이 아니라 실제 유물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그것은 절대적인 객관적 형태——**화폐** 형태 최종적으로는 **자본** 형태——로의 전형을 지향하는 현실의 과정이다. 실제로 또한 그 과정은 상품소유자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계기지위짐으로써 역사적 과정으로도 접근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가치크기의 양적 표현문제에 의해 필연화된 가치형태의 전개는, 한편으로는 표상을 전제한 실체이며 운동형태로 존재하는 추상노동량, 즉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연속성을 갖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역사적 과정의 개입에 의해 차별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운동형태로서의 추상노동과 상품의 가치형태가 사회적·역사적 과정에 의해 절대적인 객관적 형태로 전형되어 나온 결과는 **화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화폐는 리카도나 스라파의 생각처럼 상품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즉 실체와 무관한 **뉘메레르** 또는 **베일리**의 생각처럼 순수한 외적 척도가 아니라, 상품세계 내부로부터 상품의 자기전개에 의해 질적으로 전화해 나온 가치척도로서 ‘**質**의인量’ 또는 실체에 기초한 ‘**量子**’(quantum)라는 것이다.<sup>28)</sup>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상품이 일반적 교환가치로 발전한다는 사실로부터, 교환가치는 특수한 상품으로 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특수한 상품은 모든 다른 상품의 교환가치를 ‘표상’(representing), ‘상징’(symbolizing)하는 특권, 즉 화폐로 되는 특권을 획득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貨幣屬性**(獨: Geldsein, 英: monetary properties)이 모든 상품에 착정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품이 화폐주체로서 나타나는 교환가치 자체의 본질로부터 일어난다.”<sup>29)</sup>

그런데 리카도와 오늘날의 스라파안들은 상품의 등가관계를 **뉘메레르** 상품 덩으로 표시함으로써, 화폐의 이러한 성질 및 본질을 무시하고 가치의 양적 표현수단으로서의

27) 카스토리아디스([10], p. 673)는 맑스가 19세기 전반에 눈부시게 발전한 화학의 성과에 힘입어 본질/형태 간의 관계를 이렇게 **轉形**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바로 이 점이 그를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는 헤겔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본다.

28) Eldred, M. & Hanlon, M. [12], p. 35.

29) Marx, K. [21], p. 167.

화폐를 거부한다. 이는 등가성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 하나의 배제된 뉘메레르 상품이 그러한 등가관계를 표시하게 되었는가? 뉘메레르 상품의 그러한 능력은 무엇 때문에 야기된 것인가? 하는 것에 답하지 못한다. 여기서 다만 문제시되는 것은 사회적 과정, 즉 시장과의 관련 없이 어떻게 노동시간과 교환가치(가격)의 일치를 위해 이러한 뉘메레르 상품을 규정할 것인가였다. 결국 리카도와 스라피안들은, “질적인 것은 양적인 형태에서 사라지며, 질적인 것은 구체적인 量을 위한 量子를 제공한다”<sup>30)</sup>라는 해결의 논의에 관련하여 볼 때, 척도란 質(구체노동)과 量(추상노동)이 보다 높은 통일체로 해소되는 모순에 찬 객관적 범주<sup>31)</sup>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노동과정과 교환과정 양 측면을 포괄하면서 일어나는 구체노동의 추상노동으로의 전화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가치는 그 형성과정과 더불어 상품세계 내부에서 질적으로 발전해 나오는 화폐형태를 통하여 그 양적 크기를 획득함을 알지 못했다.

## 2. 가치형태 그리고 화폐형태의 필연성

추상노동은 그 표층운동이 상품-화폐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세계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 노동들로부터 노동의 추상은, 두 상품만에 의한 직접적 교환관계( $C_1 - C_2$ )로부터는 발견할 수 없고 일반적 교환이 통용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교환( $C_1 - M - C_2$ ) 현실의 실제과정으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추상노동을 상품교환내 구체노동들의 모든 질적인 차이를 증류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공통분모로 파악(蒸溜主義的의 思考方式)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추상노동범주를 형식적 추상방법에 따라 이끌어 내으로써, 추상노동의 도출에 자본주의적 상품세계의 일반적 교환이 아닌 단순상품생산사회의 교환을 기점으로 놓아도 무방하다고 보며, 추상노동개념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sup>32)</sup>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추상노동 도출을 위한 ‘보편적 교환관계의 전제’ 의미를 실제 현실과정의 전제로 이해하고 추상노동 자체를 현실의 교환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고찰하고 있

30) Eldred, M. & Hanlon, M. [12], p. 55에서 재인용.

31) Pilling, G. [25], p. 61.

32)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즉 두 상품간의 교환관계에서 양자의 사용가치를 추상해 낸 다음 공통된 第3者,  $\alpha$ 라는 추상노동을 추출해 내는 방식은 소위 蒸溜法이라는 것인데, 이는 과연 노동가치론의 논증으로서 타당한 논리인가 하는 뵘-바베르크의 비판 이래 상당히 끈질기게 존재해 왔다. 추상노동개념을 실체주의적 그리고 초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견해에 따르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기 때문이다. 추상노동은 표상을 전제하고 있는 상품생산내의 사회적 실체범주이며 표상으로의 전형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의해 통제·조절되고 조건화되어 있는 인간노동 일반 범주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환의 전제'라는 의미는 실제의 역사과정으로부터 추상노동을 경험론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한 현실적 전제로서가 아니라, 맑스 특유의 抽象方法論, 즉 '구체적 현실을 견지한 思考 속의 抽象'(구체적 추상)을 위해 도입된 유물론적 내용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추상노동과 가치개념은 그것의 대상적 존재인 상품을 개별적으로 우연히 교환되는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상품세계의 교환가능한 상품들 중의 하나로써, 요컨대 자본관계에 규정되어 있는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을<sup>33)</sup> 고찰한 결과 얻어진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교환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에 규정된 구체적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의 추상 그리고 이것이 지출된 대상적 존재로서의 상품은, 이를 반영하여 사용가치이자 교환가치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상품형태는 이로부터 특수한 형태인 현물형태 또는 자연형태와 사회적 형태인 가치형태라는 이중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상품이 이렇게 이중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체적 상품세계를 견지한 체사고 속에서 구체노동의 추상노동으로의 환원이라는 추상작용을 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용가치의 현상형태는 본래의 자기형태, 즉 현물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치의 현상형태는 그 실체인 추상노동의 본질적 성격, 즉 量으로서의 추상노동은 상품에 교환가능성, 즉 가치크기의 측정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가치크기의 측정을 위한 직접적 척도는 아니라는 성격으로 인해 본래의 자기형태와 구별되는 '對象的 形態'를 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관계를 통해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형태를 그 대상적 형태로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품형태의 이러한 이중적 모순은 상품세계에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형태와 구별되면서 그 상품의 일반적 성격을 동일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등가형태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상품형태의 이중적 모순이 이것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정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곧 가치형태 및 화폐형태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33) 히로시 우찌다(Uchida H.)는 추상노동개념 도출의 전제인 상품이 자본관계에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래야만 가치관계에 의해 상품이 資本으로 전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상품을 본질로서의 자본이 착정해 놓은 '規定的 存在'(determinate being)로 고찰함에 따른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규정적 존재'란 본질이 기초(Grund)로 착정해 놓은 것으로서 현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고 본질의 外觀(Schein)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전제가 되기 위해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본으로 전형해 나갈 필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Uchida, H. [31], p. 31.



상품세계내에서 외적 표현상 통일을 이루면서 대립하고 있는 두 極(polarität)이란, 가치가 표현되고 반영·반사될 뿐만 아니라 측정 '되'는 가치물(Wertding) A, 요컨대 상대적 가치형태와 이 표현의 자료로서 반영·반사의 거울역할을 하며 측정 '하'는 가치체(Wertkörper)  $B_1, \dots, B_n$ , 즉 등가형태를 말한다. 가치형태는 가치물로서의 그 일반적 성격 및 가치표현을 등가형태를 매개로 하여 획득하므로 '간접적인 교환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y_1, \dots, y_n$ 이라는 상이한 사용가치량들을 산출한 구체노동들의 산물로서의 등가형태는, 상품 A의 가치형태에 대해 동일하고 무차별하게 추상노동을 구체화해 주고 이 추상노동의 가치체 역할을 해 주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교환가능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가형태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등가형태 자신의 '직접적 교환가능성' 자체가 그 자신의 특수한 개별노동의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社會的 過程(social process)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등가형태의 이와 같은 성질은 그것이 추상노동의 객관성을 표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표상능력 자체는 아직 제한적으로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등가형태  $B_1, \dots, B_n$ 이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의 상품인 상품 A의 가치형태를 반영하는 관계로서일 뿐이고 전체 상품들의 가치형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여 아직 등가형태의 일반성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등가형태  $B_1, \dots, B_n$  상품들은 각각 '다수'(Many) 중의 '하나'(One)로서 오직 하나의 상품인 상품 A의 가치표현에만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상노동의 객관적 표현 역시 아직 일반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추상노동의 객관적 표현의 부족, 이는 곧 일반적 등가형태, 보편적 등가물로서의 화폐형태의 필연적 등장으로 연결된다.

추상노동이 절대적·일반적 객관성을 획득하고 가치형태의 일반적 표현이 가능하려면, 등가형태가 시장의 영역, 교환의 범위, 국경의 범위에 관계없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는 상품세계에서 한 상품에 배타적으로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사회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즉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를 공통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인 독점권 및 교환가능성이 리카도의 사고방식처럼 상품세계내부의 과정과 상관없이 규범적·제도적으로 주어진다거나, 또는 이단적 접근처럼 사회구성원 사이의 모방욕망과 그에 따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사회 특유의 노동분할 방식——간접적 방식에 의한 사회적 노동력의 배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오직 사회적 관계의 반영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리카도의 경우 화폐경제가 실물경제와 분리되어 고찰되고, 이단적 접근의 경우 가치실체와 상관없이 가치의 표현형태인 화폐가 자본주의사회 본질의 축으로서 취급되어 궁극적으로 가치론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독점권으로서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가지는 일반적 등가물이 상품세계내 부로부터 현상하게 되는 필연성은, 위에서 본 제2형태 자체내에 놓여 있다. 지금 제2형태를 보면 등가형태  $B_1, \dots, B_n$  등은 '직접적 교환가능성' 성격의 표현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반면, 가치형태  $A$ 는 어느 사용가치형태에 대해서도 불문하고 그 가치표현의 일반성을 얻고 있다. 이 일반성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점차  $A$ 가 절대적인 가치대표물내지는 가치기호(Wertzeichen)인 것처럼 전도된 인식<sup>36)</sup>을 갖게 하고, 상품  $A$ 에 절대적인 物神性, 즉 추상노동량 표현의 절대적 객관성을 부여하게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 상품  $A$ 가 가치의 화폐형태로서 고정된다. 우리는 그것을 위의 제2형태를 역전시켜 놓으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 자체는 일반적 가치형태(제3형태)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누락시키고 직접적으로 화폐형태로 이행하는 논리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첫째, 맑스의 상품세계를 논리-역사주의적으로만 사고하는 방식을 거부하기 위해서이다. 이 접근방식은 가치실체를 생리적·기술적·육체적 측면에서 동일화된 평균노동으로서의 추상노동으로 보고, 맑스가 상품분석을 단순상품생산사회를 기점으로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가치의 형태규정이, 가치실체인 추상노동의 본질적 성격, 즉 표상을 전제하여 도출됨으로써 객관적으로 구체적 표상을 지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지 않고, 단지 역사발전과정에 대응하여 상품이 현실적인 변증법적 운동을 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추상노동의 절대적인 객관적 형태로서의 화폐는 단순한 역사적 산물로 규정되고 만다. 즉, 논리-역사주의적 접근방식에서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표현한 가치형태의 전개과정, 예컨대 제1형태 → 제2형태 → 제3형태 → 화폐형태로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인 교환의 역사적 발달과정으로 이해하고, 화폐 자체는 이러한 교환과정의 발달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36) 이러한 전도된 인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일어난다. 즉, 하나의 상품인 상품  $A$ 에 대해 '다수'의 많은 상품들이 표현의 매개역할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많은 상품들은 그들 자신의 가치물이 하나의 상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고, 결국 각각의 '다수'는 '하나'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수'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는 제2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One general)로서 규정되므로 일반적인 등가형태로 현상하게 된다. Uchida, H. [31], p. 54.

둘째, 이론적인 문제 때문이다. 제3형태의 인정은 그것이 제2형태의 단순한 역전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데, 이는 가치표현구조내 양극의 비대칭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배일리처럼 양극간 상호침투성을 인정하게<sup>37)</sup>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순한 조작에 의해 보편적으로 유일한 가치표현 재료가 획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로 리카도 및 스라피안이나 신고전파에서 취하는 뉴메레르 선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설사 이 조작이 인정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상품 A가 가치표현재료로 된다 하더라도, 상품 A는 그 특수한 재료로 인해 제2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가형태의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품 A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  $B_1, \dots, B_n$ 이 비록 상품 A를 통해 유일한 가치형태의 표현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A라는 특수한 사용가치형태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2형태는 제3형태와 동일한 측면으로서 이해될 수 있거나 또는 화폐형태가 가지는 전도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맑스가 『자본론』 초판에서 제시한 제4형태<sup>40)</sup>와 동일한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치의 실제규정과 형태규정 양자의 토대인 추상노동성적 그리고 그것의 발현으로서의 상품세계라는 우리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가치형태 및 화폐형태의 필연성 논리는 제2형태와 제4형태의 동시적 존재체계 속에서만 그 생성의 계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만 노동과 화폐, 가치와 가격, 가치와 화폐 간의 관계가 질적·연속적인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형태의 발생에 제3형태의 전제는 결코 필연적이지 않으며, 오로지 제2형태와 화폐형태 간에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7) 권영경 [2] 참조.

38) Arthur, C. J. [5], p. 78, Foly, D. [15], p. 20. 카르둘리에는 第3形態를 누락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3개의 상품, 3명의 생산자를 고려할 경우 제2형태의 逆은 일반적 동가물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2형태 그 자체일 뿐이라고 하며 제2형태의 단순한 조작에 의해 보편적 동가물을 도출하는 방식을 거부한다. Cartelier, J. [9] 참조. 한편, 칼링 역시 제2형태와 제3형태 간의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맑스의 예의 제2형태를 보면 가치형태의 일반성을 얻고 있는 린넨(우리의 예에서는 상품 A)과 非린넨상품 간의 관계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3형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2형태에서의 린넨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상품은 린넨에 대해 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얻고 있는 제3형태에서의 린넨의 입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면에서 그는 화폐의 발생에 역사적 전제는 있을 수 없으며 제3형태는 누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arling, A. [8], pp. 64~67.

39) Eldred, M. & Hanlon, M. [12], p. 34, Carling, A. [8], p. 62.

40) 제4형태란 복수로 나타나는 제2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 동가물, 즉 화폐로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하나의 상품의 등장, 즉 사회적 독점권으로서의 화폐 등장의 곤란성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맑스는 『자본론』 제2판에서는 '일반적 가치형태'의 도출을 위한 '확대된 가치형태'의 모순으로 설명하였지만, 초판에서는 '일반적 가치형태'인 제3형태를 부정하고 화폐형태의 전도성을 보여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은 가치의 양적 표현에 있어서 가치형태를 필연화하고, 가치형태는 직접적으로 화폐형태의 착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3 형태를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1형태라고 부르는 '단순한 가치형태'가 보여 주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술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품을 '형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物的 가치표현구조이다. "린넨 20마가 저고리 한 벌과 교환된다" 여기서의 가치의 양적 크기의 표현을 위해 대응하는 상품세계 양극에 있어서의 역할 차이가 문제시된다. 저고리 한 벌은 존재론적으로 사용가치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가치, 즉 추상노동의 體化, 結晶化, 말하자면 가치체로서만의 의를 갖는다. 반면, 린넨은 그 자신 가치존재(Wertsein)이기 때문에 저고리와 교환될 수 있지만, 가치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저고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이다. 따라서, 린넨의 가치는 반영되는(reflexive) 것이지, 내재적 속성의 즉자적 외화는 아니다.<sup>41)</sup> 린넨의 가치는 저고리의 사용가치를 통해 반사되고, 저고리는 자신의 사용가치로써 직접적 교환가능성(등가형태)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린넨과 저고리는 상호 침투할 수 없는 대립극으로서 비대칭성을 띠게 된다.

둘째, 상품을 '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노동차원에서의 가치표현구조이다. "방직공의 노동과 재봉공의 노동이 등치된다" 린넨, 저고리 양자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물적 표현구조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 양 노동관계는 구조적으로 물적 차원 관계와 병행하여 일어난다. 저고리는 린넨의 가치를 반사해 주는 가치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봉공의 노동은 그 노동의 특수성으로써 직접적으로 린넨의 가치를 창출해 낸 노동, 즉 추상노동과 등치된다. 이는 재봉공의 노동이라는 그의 특수한 존재론적 의미가 상실되고 추상노동이라는 의미론적 가치만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방직공의 노동은 존재론적으로 추상노동이면서도 스스로는 증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재봉공의 노동과 관계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론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셋째, 상품을 '질적·형태적 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가치표현구조이다. "물신적 구조의 완성" 린넨의 가치를 만들어 낸 방직공 노동의 특수한 성격은 그 자신의 구체적 노동활동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구체적 노동형태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표현의 공간을

41) 여기서 말한 반영(reflexivity)의 의미는 他者와의 관계 속에서의 반영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더(Arthur C. J.)가 형식논리학자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반영의 결여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더는 형식논리학자들이 반영의 의미를 'x = x'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等價性 자체를 자연적(소재적)·질적인 동일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반영의 의미를 'x = y' 로, 즉 대립적·양적 동일성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thur, C. J. [5], p. 73.

찾아야 하는데, 그 표현 자체는 대상적 형태, 즉 다른 구체적 노동의 산물(물적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대상적 형태는 첫 번째와 같은 단순한 물적 차원의 형태가 아니라 노동에 근거한 물적 형태이다. 따라서, 이제 린넨의 가치는 단순히 저고리라는 외적인 물상적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노동 일반 응고로서의 가치로서 표상될 수 있게 된다. 즉, 린넨은 저고리라는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사용가치형태에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고리의 사용가치를 만들어 낸 재봉공의 노동이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상실한 채 인간노동 일반, 추상노동의 의미에만 기초하고 있는 응고물로서의 저고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린넨의 가치가 이와 같은 저고리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저고리의 추상노동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린넨의 추상노동은 간접적으로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일반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등가형태의 상품은 상품세계의 가치표현구조에서 추상노동의 객관성,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획득하고 있지만, 상대적 가치형태로서의 상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형태의 규정을 요하는 상품은 불가피하게 등가형태의 상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그 결과 등가형태의 상품이 가치주체로서 인식되는 상품세계의 전도성이 나타나게 된다.

논리-역사주의자들은 제1형태를 제2형태에 선행하며 단순상품생산사회에서의 가치크기의 양적 표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sup>42)</sup>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단지 제2형태내지는 화폐형태의 한 계기로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에 포섭된 한 의미로서 상품세계 물신적 구조의 顛倒性을 보여 주는 매개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1형태의 내용이 다음 세 가지 진술단계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한 가치형태'에서 상품세계의 物神性, 전도성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하는데, 이는 곧 사적 노동의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승인, 추상노동의 객관적 표현 자체가 상품형태와 화폐형태 간의 직접적인 내적 연관성 속에서나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42) 論理-歷史主義者들은 가치형태의 전개과정을 물질적인 사회적 생존과정의 현실적 전개, 즉 교환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제1형태는 화폐형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기점이고, 제1형태로부터 제2형태로의 전개는 현물경제로부터 상품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상술한 것처럼 가치형태론에서 화폐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로서 발생되므로 가치형태론과 교환과정론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는 주로 『자본론』 제2판을 근거로 하여 해석함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힐퍼딩(R. Hilferding)의 주장이래 정통맑스경제학자들 사이에 가장 오랫동안 정설로서 존속되어 왔다. 舊 소련에 있어서는 로젠베르크, 예전, 체르코비츠, 짜골로프, 오스트로비치 등 거의 대부분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저자들이 이 說을 따랐으며, 독일에 있어서는 서독의 홀츠캠프(Holzcamp K.)와 대부분의 동독정치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는 제2차대전 前의 河上肇이래 戰後의 宮川實에 이르기까지 非宇野學派 대부분의 모든 맑스경제학자들이 이를 따랐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한 가치형태'는 제2형태내지는 화폐형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치의 화폐형태는 상품생산 및 상품관계에 고유한 것으로서 가치의 유일한 표현형태라는 것이다. 생산과 교환의 접합 내에서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는 추상노동의 객관화는 화폐형태로의 양적 표현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품세계는 그 자신의 가치척도를 그 자신의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척도로서 화폐가 필연적으로 정재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누차 강조하였듯이, 리카도는 상품세계 외부에서 가치척도를 찾음으로써 화폐가 가치척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그런데 사실 교환비율을 내재적·숨겨진 가치척도 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는, 화폐가 가치척도라는 질적인 점이 파악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가 상품세계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자립적인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와 사용가치로서의 상품 간에 이와 같은 차별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화폐가 상품과 동일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그러면 화폐가 반드시 현실적인 사용가치를 지니는 실체적인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즉, 가치척도 역할을 하는 화폐는 반드시 상품으로서의 실체를 지닌 금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가?

상술하였듯이 화폐는 추상노동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상품세계가 사용가치/교환가치로, 즉 상품/화폐로 분리·대립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지닌 동가형태로부터 질적으로 전화해 나온 것이므로, 화폐 자체를 생산한 노동은 '사회적 과정'에 의해 구체적 노동형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오직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노동만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리하여 화폐의 사용가치는 특수한 질적인, 일반 상품이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맑스의 말대로 '형식적인 사용가치' (formalen Gebrauchswert)만을 지니고 가치의 반영, 즉 자립적인 교환가치로서의 定在 자체를 존립근거의 사용가치로 취하게 된다. 상품은 사용가치이자 교환가치이지만, 화폐는 교환가치일 뿐이다.<sup>43)</sup> 그것은 이질적인 상품들에 가격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상품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동등한 것을 표상해 주는 가치기호 (Wertzeichen)이다. 기호란 제임스 스튜어트의 주장처럼 사물에 어떤 이름을 부여해 주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어떤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표상해 주는 형식임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본 바 있다. 화폐가 가치기호로서 규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용가치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은 주화나 지폐여도 무방할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어떤

43) De Vroy [11], p. 186.



일정한 단계에서 가치척도로서 금이 사용되었던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金 빛깔을 모든 사람들이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한정적인 인간노동 일반을 표상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모든 상품들의 교환가치가 그것으로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특수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상품가치의 화폐형태에서의 표현, 예컨대  $y_1$ 량의 상품  $B_1, \dots, y_n$ 량의 상품  $B_n \rightarrow Z$ 량의 화폐형태 관계는 상품들( $B_1, \dots, B_n$ )에 가격표현을 부여해 준다. 이는 상품단위들이 무엇으로 제시되든간에 화폐가 그것들을 양적으로 계산하고 그것들을 잘게 분해하여 단위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 여기서  $B_1, \dots, B_n$  상품들 각 단위는 각각 1에서  $n$ 까지의 단위이고  $Z$ 량의 화폐는 4온스의 金으로 그리고 1온스의 금이 화폐제도에 의해 1원이라는 화폐명칭으로 평가되고 있다면,  $B_1, \dots, B_n$  상품들은 각각 4원, 2원, 4/3원,  $\dots, 4/n$ 원의 단위가격을 갖게 된다. 상품  $B_1, \dots, B_n$ 들은 동일한 추상노동량 크기, 즉 동등한 교환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관계했을 때 사용가치량 생산의 차이로 인해 각각 상이한 단위가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상품들은 그 자체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들의 화폐명칭으로서 서로 말하며, 또 화폐는 어떤 대상을 가치로서, 즉 화폐형태로서 확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항상 계산화폐(Rechengeld)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대상의 명칭은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해 완전히 외적인 것이다. ... 貨幣名稱에는 가치관계의 모든 흔적이 소멸되어 있는 것이다.”<sup>44)</sup>

그런데 이렇게 단위가격을 설정해 주는 화폐형태 자체는 가치로부터 가격이 양적·질적으로 이탈해 나갈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첫째 화폐제도를 통해 가치척도로서 사용되는 基準貨幣의 도량표준에 대한 화폐명칭으로부터 현상한다. 예컨대, 만일 화폐제도에 의해 金이 기준화폐로서 규정되고 金 1온스당 화폐명칭이 1원이 아니고 1/2원이나 혹은 10원으로 규정된다면, 상품가치는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있어서 2배의 하락 또는 10배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화폐 자체는 상품세계 내부과정의 소산이지만, 도량표준에 대한 화폐명칭 자체는 법과 화폐제도, 즉 국가활동의 소산이라는데 기인한다.

둘째, 그것은 한정된 상품량에 대해 일정한 양의 화폐가 대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야기된다. 위에서 예를 든  $B_1, \dots, B_n$  상품들 가치의 양적 표현에 있어서 요구되는 화폐량은  $nZ$ 량이었다. 그것은  $B_1, \dots, B_n$  상품들에 포함된 추상노동량과 동일한 양을 체현하는 양이었다. 그러나, 가치표현에 요구되는 화폐량 자체는 자본의 재생산운동 및

44) Marx, K. [22], Vol. I, p. 115.

축적활동으로 인해 상품세계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도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특히 화폐유통이 상품생산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해 나감에 따라 더욱 필연화된다. 따라서, 이 때문에 상품운동에 자립하는 화폐운동이, 즉 상품가치변동과 무관한 화폐가치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상품가치크기가 추상노동량에 대한 필연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크기가 가격으로 전화함으로써 그 관계 자체가 한 상품량과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량과의 교환비율로 전략함에 따른 모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화폐형태에 가치의 현상형태로서의 화폐형태와 그것의 가격표시로서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야기시키는데, 국가개입이 필연화되어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에서 이 경향은 고유한 것으로서 정착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점 때문에 이단론자들은,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이제 추상노동량을 양적으로 표상하는 일반적 등가물로서보다는 자본주의사회 경제체제를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조절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격과 가치가 양적으로 불일치하거나 가치크기로부터 가격이 괴리될 가능성은 이미 가격형태 그 자체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가격형태의 결합이 아니며 오히려 가격형태를 어느 특정한 생산양식(가치법칙이 무원칙적으로 평균법칙으로서만 관찰되는 그러한 생산양식, 즉 인용자-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형태는 가치크기와 가격, 즉 가치크기와 그 화폐적 표현 간의 양적 불일치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화폐가 상품의 가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반적으로 가치표현으로 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질적 모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sup>46)</sup>

이는 결국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인가? 그것은 추상노동의 절대적 객관화에 화폐형태는 필요조건이지만,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의 객관화에 있어서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격형태가 자본형태에 매개되어 표층영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가치크기의 양적 표현으로서의 화폐형태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내적 논리로 인해 상품세계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외적 대립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립화된 형태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자본형태이다.<sup>47)</sup>

자본형태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 최종적인 가치형태로 규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의 자기증식형태(M-C-M)로서 추상노동에 의한 新價値, 즉 잉여가치의 산

45) Brunhoff, S. de [7], p. 423.

46) Marx, K. [22], Vol. I, p. 117.

47) Napoleoni, C. [24], p. 104~105, Eldred, M. & Roth, M. [13], p. 19.

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형태의 형성과정에서 자본가들이 경쟁에 규제받음으로써 추상노동량 크기에 연관된 가격형태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상품의 비교가능성(commensurability)이 더 이상 추상노동에 의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자본가들간의 경쟁은 추상노동량에 비례하여 가격형태가 규정된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교환가치의 자립적 형태로 나타난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규정된다는 내용으로 전환시킨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본가적 상품생산의 표층에서 가장 표피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외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가격형태는 평균이윤율형성의 법칙에 규제받게 되는데, 이는 곧 상품의 비교가능성이 모든 개별자본들의 자본구성을 무시한 채 노동력소비를 한정된 양으로 제한시키고 지불된 노동시간 자체를 균형시키는 것에 의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sup>48)</sup>

일반적으로 전자의 내용, 즉 추상노동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을 가치라고 하고, 후자의 내용, 즉 평균이윤율의 형성을 통한 지불된 노동시간의 균형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을 생산가격이라고 하는데, 소위 '전형의 문제'(transformation problem)는 바로 이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리카도가 불변의 가치척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관계를 1 대 1 대응관계로 그리고 양적 규정관계로 생각하고 불변의 가치척도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미해결인 채로 남겨 놓고, 다만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문제에 그 어떤 매개의 법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지를 무의식적으로 남겨 놓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스라피안들이나 일부 맑스경제학자들은 리카도의 이러한 취약점을 오히려 제승하고 맑스의 상술한 바와 같은 인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수리적인 조작에 의해 1 대 1 대응관계를 보여 주며 전형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형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치로부터 점차 형태발전해 나오는 가격현상을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관계의 내적 논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교환가치형태가 자본형태로 최종적으로 자립화하고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적 결집과 조절이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진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는 말하자면 상품세계가 생산과 교환의 접합에 의해 구축되어 있음으로써, 표층영역과 심층영역 양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품의 비교가능성은 숫자적 일치만을 보여주는 단순한 도구에 의해 결코 주어질 수 없으며, 일정한 매개과정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고찰한 가치형태론의 내용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가치형태론에서는 가치와 가격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되어야 할 독립/종속변수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

48) Himmelweit, S. & Mohun, S. [16], p. 78.

치크기의 양적 표현이 형태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필연적 현상으로서 인식한다. 불일치는 이미 화폐형태 자체에 내포해 있다가, 화폐형태의 자본형태로의 전화와 더불어 더욱 진전된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전형의 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non-problem), 그것은 다만 교환가치 척도의 형태변화 문제로서 이해해야 할 문제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다만 고전학파가 가치의 양적 표현문제에서 부딪쳤던 곤란성을 왜 맑스는 가치형태론이라는 매개적 이론을 내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점만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주안점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논의는 유보해 두고자 한다.

#### IV. 맺 음 말

페티이래 고전학파의 가치론은 많은 이론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특히 가치실체문제와 그것의 양화문제를 분리적으로 고찰하고, 후자의 문제설명에 실패하였다는 면에서 그러하였다. 즉, 스미스의 경우 “노동은 본원적 구매가격이다”라고 하며 가치의 실체로서 인간노동 일반을 고려하면서도 그 양적 크기는 지배노동량, 즉 생산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리카도의 경우 상품생산에 지출된 투하노동이 가치의 원천이지만 그것은 불변의 가치척도를 통하여 양적 크기 및 변동의 크기를 논증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가치의 질적 규정과 양적 규정문제를 이질적 논리로 전개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상품세계를 화폐없는 실물적 생산세계로만, 그리고 화폐의 제1차적 기능을 주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에서 구하고 가치척도기능을 부수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가치의 양적 표현문제를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전학파가 가치론에 남긴 곤란성은 맑스에 의해 추상노동개념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로부터 가치형태 논리가 도출됨에 따라 해결되었다.

추상노동은 그 본성상 양적 크기의 표현으로서의 가치형태를 필연화하고, 가치형태는 곧 화폐형태로 착정됨으로써 교환가치 자체를 오직 화폐와의 관계만에서 표현하게 한다. 즉, 궁극적으로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 이것이 대상화된 상품가치는 추상노동량, 말하자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텀으로 측정되지 않고 오직 화폐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카도와는 달리, 맑스에 있어서는 가치와 가격의 양적 일치를 위한 도구로서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척도란 요구될 필요가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조직이 그 현상형태인 세포형태를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는 형태전화에 의해 그 양적 크기를 표상하고 가격으로서 현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맑스에 있어서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는 함수관계가 아니라, 은닉(dissimulation)-표명

(manifestation)관계내지는(De Vroy [11]) 반사·조절관계(Elson, D. [14])로서 그 불일치현상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상품세계 내부모순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소위 전형의 문제는 리카도의 딜레마일 뿐, 맑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결론할 수 있으며, 가치론사에서 가치형태론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하겠다.

### 命 参 考 文 献 命

1. 權英卿, “리카도 정치경제학체계와 不變의 價値尺度”, 「산업과 경영」, 제28권 제2호, 1991.
2. \_\_\_\_\_, “베일리의 가치논리에 대한 고찰”, 「연세경제연구」, 제 I 권, 1994년 가을호.
3. 이채언, “價値概念의 새로운 확립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2회 연구발표회논문집」, 1990. 12.
4. 홍 훈, “價値形態論에 존재하는 한 가지 異質性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9회 연구발표회논문집」, 1992년 7월.
5. Arthur, C., “Dialectic of the Value-Form,” in *Value : The Representation of Labor in Capitalism*, CSE Books, 1979.
6. Becker, W., *Kritik der Marxschen Wertlehre*, Hoffmann und Campe, 1972.
7. Brhunoff, S. de, “Marx as an a-Ricardian : Value, Money and Price at the Beginning of Capital,” *Economy & Society*, 1, 1972.
8. Carling, A., “Forms of Value and the Logic of Capital,” *Science & Society*, L(1), Spring 1986.
9. Cartelier, J., “Marx’s Theory of Value, Exchange and Surplus Value : A suggested Reformul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 1991.
10. Castoriadis, C., “From Marx to Aristotle, from Aristotle to Us,” *Social Research*, 44(5), 1978.
11. De Vroy, M., “Value, Production, and Exchange,” in *Value Controversy*, Verso, 1981.
12. Eldred, M. & Hanlon, M., “Reconstructing Value-Form Analysis,” *Capital and Class*, 5(13), 1987.
13. Eldred, M. & Roth, M., *Guide to Marx’s Capital*, CSE Books, 1978.
14. Elson, D., “The Value Theory of Labor,” In *Value : The Representation of Labor in Capitalism*, CES Books, 1979.
15. Foley, D. K., *Understanding Capital Marx’s Economic Theory*, Harvard Univ. Press,

- 1986.
16. Himmelweit, S. & Mohun, S., "The Anomalies of Capital," *Capital and Class*, 2(6), 1978.
  17. Krause, U., *Money & Abstract Labor*, Verso, 1982.
  18. Lipietz, A., *The Enchanted World : Inflation, Credit and the World Crisis*, Verso, 1986.
  19. Malthus, T. R., *The Measure of Value Stated and Illustrated, with an Apprication in the Value of the English Currency Since in 1790*, 1823.
  20. Marx, K., *Theories of Surplus Vlaue*, I, II, 1971, III, 1972, Moscow, Progress Published.
  21. \_\_\_\_\_, *Grundrisse : Outlin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intage Books, 1973.
  22. \_\_\_\_\_, *Das Kapital*, I, 1st edition, 1867, 3rd edition, II, III, Dietz Verlag, Berlin, 1979.
  23. \_\_\_\_\_, *Karl Marx-Fridrich Engels Werke(MEW)*, 13, 1985, 19. 1987, 29. 1987, 31. 1986, 32. 1986, 43-1. 1975.
  24. Napoleoni, C., *Smith Ricardo Marx*, Basil Blackwell, 1975.
  25. Pilling, G., *Marx's Capital : Philosophy and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1980.
  26. Ricardo, 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edited by P. Sraffa with the Collaboration of M. H. Dobb, Cambridge Univ. Press, 1962.
  27. Rosdolsky, R., *The Making of Marx's Capital*, Pluto Press Ltd., 1st edition, 1977, 2nd edition, 1980.
  28. Rubin, I. I.,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Black & Red, 1972.
  29. \_\_\_\_\_,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Trans. & ed. by D. Filtzer, Ink Links Ltd., 1979.
  30. Steedman, I., *Marx after Sraffa*, NLB and Verso, 1977.
  31. Uchida, H., *Marx's 'Grundrisse' and Hegel's Logic*, Routledge Kegan & Paul, 1988.
  32. 浜田和夫, 「A. 스미스의貨幣論がマルクスに與えた影響について」, 『研究年報經濟學』, 東北大學, 45(2), 1983.
  33. 奥山忠信, 『貨幣理論の形成と展開 : 價值形態論の理論史的考察』, 社會評論社, 1991.
  34. 資本論草稿集翻譯委員會 譯, 『マルクス資本論草稿集』(MEGT)-1861~1863年の經濟學草稿 第7卷 一, 大月書店, 東京, 1982.